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110주년기념대회 개최

표어 :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2018년 8월 12일(주일)~13일(월)에 걸쳐 재일본한국YMCA(동경)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110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 선교110주년을 맞이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는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를 표어로,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신도와 교역자들이 모였다. 대회는 제1부 : 기념예배, 제2부 : 기념식, 제3부 : 오찬회로 구성되어, 대회 전후에는 병행하여 합동수양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는,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선교협약을 체결한 한국, 일본의 동역교회 대표들로부터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치유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사명이며, 화해를 이루는 신앙공동체로서 성숙하기를 소망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실현을 비롯해 동아시아·세계 에큐메니칼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찬사를 보낸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주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주어진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자」 등의 따뜻한 축하 메시지가 많이 전해졌다.

제1부 부총회장 김건목사의 사회로 개회한 기념예배는, 신앙고백, 부총회장 오영석 장로의 대표기도 후,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이현지 회장이 성서(마태복음 16:13-19)를 낭독하고, 총회장 김종현 목사가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 후, 교회학교 대표 김명종군, 청년회전국협회의회 오진아 대표위원, 전국교회여성연합회 김영자 부회장의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는 총회 산하 기관인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소장 사토 노부유키(佐藤信行)씨에게 감사패 증정식이 거행되었다. 사

토 氏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일본의 크리스천을 잇는 매듭 역할을 비롯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일본 안에 있는 마이너리티(소수자, Minority) 인권을 옹호하고, 다양한 시민운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1년 이후에는 특별히 후쿠시마에서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왔다.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선교과제에 지속해서 담아온 「마이너리티 성」을, 사토노부유키氏/RAIK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보여왔다. 참가자 일동은, 그의 큰 업적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교단의 내빈들의 축하 인사 후에 오찬회에 들어갔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는 중, 지방회와 교단, 교파, 국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평화와 화해를 위해 진력을 다해 오신 다양한 분들의 활동의 흔적이 상기되면서, 지금까지 펼쳐온 여러 활동 위에 현재의 입각점(근거)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제1부 기념예배



김종현 총회장



주제강연 김성제 목사



특별강연 아ki야마 토오루 목사



저녁예배 설교 권오준 목사



감사패를 수여받는 사토씨

110주년 기념 합동수양회 개최 오후에 여성회, 남성회, 교역자로 갈라져 연수

2018년 8월 12일(주일)~15일(수)에 걸쳐, 기념대회와 함께 합동수양회가 개최되었다. 12일 주일 저녁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수양회의 13일 첫 순서는 직전 총회장 김성제목사(NCCJ총간사)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주제와 더불어 제시된 '다양한 지체를 품는 교회', '어리고 젊은 생명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복음과 공정한 질서 위에 서는 교회', '화해와 공생을 지향하는 교회'라는 4가지 부제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사를 조명하며 힘 있게 말씀을 풀어갔다. 앞으로 교회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일본기독교단의 진노우치 다이조(陣内大藏) 목사에 의한 「음악과 말씀」이라는 시간을 가졌다. 목사이면서 프로 뮤지션으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진노우치목사는 음악에는 복음의 메아리(울림)가 숨겨져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본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유머 넘치는 이야기와 잘 어우러져 참가자들을 매료시켰다.

계속해서 일본기독교단 총간사 아키야마 토오루(秋山徹) 목사의 「민족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특별강연을 하였다. 정성들여 조사한 문헌들을 인용하며, 자신의 경험과도 대조하면서,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교회가 일본 땅에서 함께 동역하는 의미, 특히 국가주의로 대치하는 긴박한 현대적 의미를 설명해주셨다.

3일째 되는 날은 일본성공회의 탁지웅사제를 초대하여, 「이단(카르트)종교」에 대한 강연을 부탁하였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단」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한 경험을 가진 탁사제는 신앙이라는 피상적인 껍질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폭력이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의 권력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폭력이 정당화되고 폭력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초청한 인기가수 윤형주장로의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 절대적인 인기를 얻은 윤장로의 목소리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큰 고통을 통과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뒷받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은 우리들의 <오늘>이 어떤 <어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여성회 리더에 의해 실현된 「신도포럼」이 열렸다. 우선,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역사를 촌극으로 되세겨 보았다. 손수 제작한 대본을 바탕으로 지방회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의 참가자들이 노래, 춤, 그리고 아마추어지만 많은 웃음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연기를 하여 풍성한 촌극이 되었다. 이후, 여성회, 장로회, 목회자의 입장에서 젊은 패널토의를 진행하였다.

「재정, 인력 등 종회가 안고 있는 큰 과제가 분명히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역사의 한 페이지는 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모두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여 온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 「마이너리티이다」 만이 아니라 「마이너리티와 동행하는」 종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의 시간은 여성회(정찬우 바이올린 콘서트와 야나기마치장로의 강연=별도 기사 참조), 남성회 모임, 교역자(한국 구미교회 김대동목사의 목회 상담에 대한 강연)으로 나누어 개최했다.

두 번에 걸친 저녁 집회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예배로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발음교회 권오륜목사를 강사로 하여 교회에서 신앙 생활에 할력을 주는 설교를 하였다.

마지막 날은 수양회를 되돌아보며 전체 토의시간을 마련했다. 「생명」 그 자체가 소홀히 취급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주제강연의 내용을 음미하지 못한 수양회의 반성을 바탕으로, 경혜중, 양형춘명예목사의 의견을 비롯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다양성을 확인하며 「모두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견을 공유하며 폐회했다.

약 1시간의 공연이었는데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하여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다. 연주하기 전에 간단하게 곡소개를 해 주셔서 더욱 그 곡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코르에 응하여 "임진강"을 마지막으로 연주해 주셨다.



야나기마치 이사오 장로

연수회 2부에는 케이오대학 교수이신 야나기마치 이사오 장로(요코하마 교회)에 의한 <크리스천과 경제 -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에게서 배우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유일한박사의 생애, 그리고 경영 철학 등 상세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다. "불의에 태협하는 것이 불의다." 크리스천으로 어떤 경제관념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고 : 이시바시 마리에)

전국교회 여성연합회 연수회 열어 바이올리니스트 정찬우씨를 초청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주년 기념대회 및 합동 수련회 사흘째 날 전국교회 여성연합회 주최의 연수회가 있었다. 연휴 기간이었기에 얼마나 참여할지 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만 120 명이 참가하여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찬우 바이올린 연주회

연수회 1부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찬우씨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열었다. 정찬우씨가 준비한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를 시작으로

관서지방회

어린이 데이캠프 열려 이코마산록에 9교회 어린이 33명이 모여

지난 7월 16일(수) 『출애굽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관서지방회 교육부주최 「제1회 어린이 데이캠프」가 이코마 산록 후레아이 센터에서 열렸다. 9교회 (어린이 33명, 어른 30명)가 참가하였다.

개회예배는 시미즈 노조미사모님의 그림연극을 통해 출애굽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었다. 그후, 장소를 옮겨 허백기목사님의 지도아래 씨없는 빵을 만들고, 씽바귀 대신 깻잎을 사용하여 출애굽 전의 유월절 유사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점심은, 요시미 히데오장로님의 기도후, 불볕더위에서 교역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이 굽은 땀을 흘리며 구워주신 바베큐로 식사를 했다.

이어서, 어린이들이 출애굽의 유사체험을 하기 위한 유니크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애슬레틱을 즐겼다. 또한, 유치부의 어린이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인 바다의 생물을 비누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프로그램의 마무리 시간에는 작품발표와 출애굽을 유사체험한 감상을 어린이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그후, 어린이용 설계명을 교독문형식으로 교독한 후, 박영자 교육부부장님의 폐회기도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올해는 “1일캠프”라는 특성상, 예년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앞으로도, 제2회, 제3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와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협력을 해주신 모든 형제자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보고 : 교육부서기 박시영)

관서지방회

청년연합회 찬미집회 개최 『청년들이여! 찬양하라!』 주제로 73명 참가

2018년 7월 8일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관서지방회 청년부 주최로 오사카제일교회에서 ‘청년부 연합 특별찬미집회’가 개최되었다.

1부 예배시간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청년주일 기도문을 교독하며 예배를 드렸고, 2부 특별 찬미시간에는 플룻 연주자 송 솔 나무씨를 게스트로 초청하여 플룻 연주와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



복음신문 9월호 휴간의 보고와 사과

복음신문 9월호는 서일본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응 등으로 발간 못하였습니다. 사과 드리며 보고합니다.

전국 교회 기도 달력

* 선교위원회는 금년 매주일에 전국의 각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기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합시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위원회)

10월에 전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 7일 : 神戶東部教会(韓承哲牧師)、姫路教会(韓澤柱牧師)
- 14일 : 姫路藥水教会、明石教会 (李聖雨牧師)
- 21일 : 水島教会、岡山教会 (金承熙牧師)
- 28일 : 新居浜グレース教会(安辰男牧師)、
広島教会(中江洋一牧師)

의 은혜를 나누었다.

집회 후에는 각 교회 청년들이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불렀다. “청년들이여!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모인 이번 집회에는 청년과 장년을 포함하여 모두 73명이 참석하였다. 이후로 찬양을 통하여 청년집회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도한다.

(보고 : 청년부장 송남현목사)

청년회전협

제69회 여름 수양회 개최 주제 『예수를 닮는다면』 아래 30명이 모여

2018년 8월 13(월)~8월 16일(목), 야마나시 켄(山梨県) 카와구치코(河口湖)에서 제69회 여름 수양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나고야교회의 아라이유키목사가 인도해 주셨다. 프로그램 내용은 이번 주제인 ‘예수를 닮는다 라고 한다면’이라는 테마로 강사로 오신 마츠타니신지(松谷信司)、キリスト新聞社社長、日本キリスト教会浦和教會長老)씨의 강연을 들었다.

3일째는 장애인과 가까이 하는 활동을 계속 해온 히라타다시(平田義)목사를 초청하여 815예배를 드렸다. 강연, 예배, 발제를 듣고 느낀 점을 그룹으로 나누어 토의하고 스탠즈 발표를 하였다. 무언각을 통한 깊은 표현, ‘얼마나 되고 싶었는가’ 등, 정체성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중충성, 변화성 등에 대해서도 깊은 고찰을 하였다. 뭔가를 고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한 만남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자신 생각 속에 있는 <세계>를 넘어선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성을 공유하였다.

참가자는 30명 정도로서 소수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중하게 마주할 수 있는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폐회예배는 신도위원장 김신야목사가 인도해 주셨고, 올해 수양회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매번 여름수양회에 참석하면 얻는것이 있지만, 이번 수양회는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챤으로써 어떤 행동

으로 하면 좋을지를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걸음을 디디려 한다.

(보고 : 후미노 나오미)





RAIK 소장 퇴임을 맞이하여

佐藤信行 (사토 노부유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74년 2월,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의 소속기관으로써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esearch-Action Institute for the Koreans in Japan 약칭 : RAIK)」가 설립되었다. 마침 재일한국인 2세와 일본인이 전국 각지에서 민족차별철폐를 위해 맞서기 시작한 요람기였었다.

1988년 4월, RAIK가 발족된 이래 그 중책을 담당해 온 배중도 장로(가와사키교회)가 신설된 가와사키시의 후레아이관의 관장을 맡게 됨으로 내가 RAIK에 부임하게 되었다.

우선 내가 착수한 일은, 『RAIK통신』의 창간이다. 그것은 전직 이었던 『계간 삼천리』 편집부 활동을 하던 중에 얻게 된, 일본사회는 재일한국인 한사람 한사람의 고투를 「역사」로 남기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일본인으로서의 확신에서였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전년도에 발족한 「외등법 문제와 씨름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의 사무국 일이다. 이어서 1990년 8월, 전국기독교학교 인권교육 세미나가 실시되어 그 운영위원회에 참가했다.

1992년 2월, RAIK의 활동에 대해 동경 변호사회로 부터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그것은 RAIK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1970년대-80년대의 「재일한국인의 인권획득을 위한 투쟁」에 대한 것 이기도 할 것이다.

1997년 전국 각지에서 이주자의 인권문제를 놓고 투쟁하는 시민단체, 교회관계단체, 노조가 결집되어 「이주자 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통신망(移住連)」이 결성되어 그 기획에 참가하였다.

2005년 12월, 재일한국인과 이주자의 인권재판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들의 호소로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가 결성되어, 그 공동사무국을 RAIK가 담당하였다. 그 연락회가 중심이 되어 2016년 일본에 처음으로 「인권 차별 철폐법(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실현되었다.

2006년 1월 국제연합 특별 보고자가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인종차별에 관한 일본 보고서」를 살릴 수 있도록, 「반차별 국제운동」과 「부락 해방동맹」, 「아이누 협회」, 「이주련」 등 「인권 NGO(비정부단체)」와 함께, 「인종차별 철폐NGO통신망」을 결성하였다.

2012년 7월, 동일본대지진의 외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YWCA관계자들과 「후쿠시마 이주여성 지원 통신망」을 결성하는 일 등.

——이와 같이 창립 44년 여정가운데 이 30년 동안의 RAIK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무언가 많은 과제를 안고 씨름하며 걸어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곳에서 몸담으며 내가 해온 일이란, 각각의 과제를 내려다 보는 듯한 대논문을 요약하는 일들은 못하고, 거의 매월 회의 내력이나 보고문을 오로지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자료집이나 뉴스를 편집하고 전단지나 포스터 작성, 성명의 기안, 세미나나든지 집회의 기획과 준비 등이었다.

이른바 「사무실」「편집실」로 관찰해 온 30년간이었지만, RAIK는 그렇게 귀중한 「자료창고」가 되었다.

2015년 11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일본과 해외에 있는 여러 교회에 호소하여 제 3회 「マイネリティ 선교 국제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는 국제회의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써 일본과 해외의 여러 교회들이 참가해 「마이너리티 선교센터」가 탄생되었고, RAIK 사무실을 공용하며 선교센터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금년 6월, 나는 만70세가 되어, KCCJ의 규정에 따라 RAIK 소장직에서 물러나 자유롭게 되었다. 이러한 RAIK의 활동이, 마이너리티 선교센타 사업의 일부로서 계속되어 갔으면——하는 내 몇대로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서서히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내가 RAIK의 일의 활동영역을 너무 「지나치게 넓혀온」 탓에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1년이나 2년, 또는 3년, 나의 체력이 허락되는 한, 「지나치게 넓혀 오고」만 일의 하나하나를 다음 세대에 넘려주고 싶다는 바램이다. 그러므로 「RAIK통신」을 계속해 나가는 일과 동시에 앞으로는 봉사자로서 주 3일은 RAIK의 일을 하고, 그리고 3일은 후쿠시마에서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태풍21호 관서지방 피해보고

지난 9월 4일, 21호 태풍으로 관서지방회의 15개 교회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다수의 교회가 복구되지 못해 긴급처치만 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浪速教会(金鐘賢牧師), 大阪教会(鄭然元牧師), 大阪第一教会(宋南鉉牧師), 和歌山第一教会(朴成均牧師), 京都南部教会(許伯基牧師)가 교회당 지붕과 벽의 일부가 벗겨져 날아가고 창문이 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어 비가 새고 있는 상입니다.

전국교회의 신도 여러분들의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